

2023. 6. 2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

빅데이터담당관	윤 총 식	02-2133-4260
빅데이터분석팀장	안 금 희	02-2133-4294
주 무 관	이 원 재	02-2133-4272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서울시,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한 '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' 개발·분석 추진... 청년 정책 활용 기대

- 서울시, 데이터 기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빅데이터 협력 협약체결
-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CB와 데이터 개발 협력
- 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 개발·분석을 통해 향상된 청년 정책 활용 기대

- 청년세대(90년생)는 이전 세대의 과거 20대~30대 대비 낮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불안정, 결혼 지연, 저출산으로 이어져 청년 문제의 주요한 경제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.
 - 1990년생은 1980년대생 20~24세 일 때 보다 순자산이 약 1,351만 원 적었고(1990년생 2,743만 원, 1980년생 4,094만 원) 이후 25~29세에는 2,58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나이가 들수록 80년대생과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. (2020년, 전국 기준) 1)
- 이에 서울시는 청년 정책(자산형성 지원사업, 금융교육 등)을 고도화하

1) Data insight report 05 세대 간 자산 격차분석 : 가계금융복지데이터, 서울연구원, 2021.11.2)

고 청년통계를 개발하고자 서울시복지재단, 4개의 민간기업(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CB)과 함께 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 ‘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 개발’을 추진한다.

- 서울시는 ‘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 개발’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기업들과 ’23.3~4월까지 2개월간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갖고 청년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협력을 협의하였으며, 참여기관은 공공, 복지, 신용평가, 금융상품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구성하였다.
- ‘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 분석’ 내용은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서울 청년 관련 데이터를 모아, ① 청년 가구 특성(혼인 여부, 부모님 동거, 1인 가구)별 소득, 소비현황을 분석하고 ② 서울시 청년의 자산, 부채, 금융상품 가입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. 이는 향후 서울시 청년 지원 정책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설계와 정책 홍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 청년의 금융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‘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’를 기반으로 청년 유형별 금융가입상품, 자산, 소득, 소비 추이가 담긴 시의성 있는 실험적 통계를 생산하고, 향후 지속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.
 - 서울시는 지역(행정동)별, 혼인 여부, 취업 여부, 주택소유 여부, 부모님 동거 여부, 직업 등에 따라 청년을 분류하고, 그에 따른 자산, 소득, 소비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.
-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“이번 서울 청년 금융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 행정에 의한 구체적 정책 발굴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 “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기관과 데이터 협업을 통해 더욱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